

족장들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본문들

<창 12:10-20; 20:1-18; 26:1-11>

[이 글은 John Roring의 The Naming of Isacc (WTJ 53 (1991) 1-127에서 발췌했다.]

박종철 교수

서론

위 본문을 읽어 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은 애굽왕 바로에게, 또 한번은 그 럴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두번이나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한 번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경험을 살려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어야만 했는데도 그것도 같은 그럴장소에서 이루어 졌으니 이상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되고보니 문서비평학자들에게는 안성마춤의 공격의 자료가 되는 셈이다. 자료비평가들에게는 원래같은 한 이야기였는데 여러갈래의 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창세기는 여러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양식비평가들은 이 세 이야기를 상호 비교하여 구전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어떻게 기원했으며 발전하여 왔는가하는 그 전승사(계시사가 아님)를 살펴 보는 것이다. 편집비평가(redaction critic)들은 한 사건의 다른 판으로 보지는 않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별개의 이야기(episodes)로 보면서 이 이야기들이 현재의 문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태도는 불신자의 비평가들만이 아니라 성경의 통일성을 믿는 자들도 이용하고 있다(예컨대, W.Green, The Unity of the Book of Genesis (N.Y.: Scribnus, 1897). von Seters, Abraham).

편리상 이 기사들을 창세기의 순서에 따라 I, II, III이라고 하겠다.

1. 자료 비평가들의 견해

자료비평가들은 이 세 본문 중 I, II는 J자료라고 하고 III은 E[20(18)]의 아웨는 재편집자의 소이라고 함]로 귀속시킨다. C. Westermann 같은 이는 창 12장이 세 이야기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으로 본다(Genesis, 16-36, p. 161).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 이야기들이 서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형성시의 재편집자의 소이라고 본다. 예컨데, I에서는 창 17:17과 12:4에 비추어 보면,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65세가 되겠고, III에서도 리브가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결혼한 지가 35년이 지났으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25:7),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였다(25:20; 21:5)] 더구나 야곱과 에서의 아이들이 태어난 지가 이미 오래인 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런 나이많은 여자들을 무엇이 좋다하여 왕들이 취하였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II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두 장 앞인 18:12에 사라자신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落) : 어떤 이는 이를 sexual pleasure)이 있으리요”라고 한 할머니를 왕이 무엇이 좋다고 결혼하기를 원했겠는가(?)라고 한다.

2. 양식 비평가들의 견해

양식비평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세 이야기들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 이야기들이 문맥에 끼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K.Koch의 “Growth of Biblical Tradition”에서 보면 I에 대해 아브라함이 땅 약속을 받은 직후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이상스럽다.”(odd)는 것이다.

그래서, 13:2은 12:9에서 계속되는 것이며, 13:1은 12:10-20의 삽입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2:10은 독립적 단위의 서론격이며, 12:19-20은 이 이야기의 서스펜스를 감소시켜서 다음에 계속되는 그 영웅의 미래 운명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려는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방식이라고 한다. II에 ‘흉년’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너무 종종 언급하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며, III에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26:1)는 이 후대 저자가 삽입한 것인 데 히브리인들의 궂전에는 어색하게 clumsy) 들린다고 한다.

Koch는 이 세 이야기들의 원래의 내용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별개의 이야기들로 전승 발전하였는지 (Transmission History)를 알기 위해 세 이야기의 내용들을 비교해 본다. Koch는 I이 가장 고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궁정에서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오직 암시만 된다고 한다(즉, 간음당했다는 뜻이다.). “그 형편의 미묘함이 이 판의 저자에게는 최소한 감지되었다.”고 한다(P. 123). I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거짓말하도록 한 것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바로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아내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Koch는 애굽의 점장이들이 자기 신들에게 묻는 바로의 기사가 제거되었다고 본다.

II는 후대의 입장을 나타내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선지자(7)이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12절에 반진리를 말한 것은 후대 편집자의 삽입이다.). 그리고, II에서는 9절에 “네가 나로 큰 죄에 이끌었다.”(You have brought great sin on me.)라 하여 간음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데,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주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6절은 이러한 비난을 제거하기 위한 후대의 어색한 첨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III에서는 사라의 미가 제거된 것은 18장에 비추어 볼 때에 문맥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I과 II에서 주요 차이는 II에서는 진 대화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III에서는 이야기하기 보다는 담화(speech)인 데, 여기서는 왕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나 신의 간섭이 없다. “모든 것이 민담 발전에서 후대단계를 지적하고 있고 여기서 이 이야기는 원형을 잃었다.”(p. 124)고 한다. 26: 3-4의 축복은 다른 J에서 거의 같은 말이다. III은 가장 수정된 것이고 후대의 것으로 그러니 역설적으로는 원형적인 인물과 상황을 갖고 있다고 하고, 가장 오래된 I이 이삭과 리브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랄의 아비멜렉에서부터 애굽의 바로왕으로 변천을 했다고 한다.

Koch는 이 ‘종족 전담 문체 형태사’에 대해 4가지 점을 지적한다. 1) 이 이야기들은 담화들로 꾸며지고 있다. 2) 도덕적 감수성이 점점 강해진다. 3)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후대판에서 덜 나타난다. 4) 이야기의 행동을 백성과 관세자들에게 친숙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이야기가 되어진 정황은 가나안 정복 이전 남부 팔레스틴 광야인데 이 삭의 후손들을 추적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아마도 목자들이 안착을 하고 아이들이 잡들은 후인 저녁 때에 장막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 들려진 것이다.”(p. 127)고 하는 상상력을 Koch는 동원한다.

3. 전체 문맥과 주제에서

자료비평가들은 가능하면 서로의 차이점을 찾아 그것이 서로 다른 자료들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같은 점들이 나오면 후대 편집자들이 조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다.

반면에, 양식 비평가들은 가능한 같은 점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시대를 거쳐 오면서 분리되었으며, 또한 연결되었는지의 그 전승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있는 문학 형태의 각각의 문맥과 상관성(relevancy) 뿐만 아니라 족장들이 이야기에서 제시된 주요 주제들을 회생시키면서 이 세 이야기의 상호 관련성을—이는 창세기 이야기들이 사실 각각 별개의 특수한 민담들인 데 이야기꾼들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짜여져 있다

는 전제를 하고 있다—찾는 것은 성경의 원의미와 의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한 단락 이야기 뜻을 알려면 전체 문맥과 주제에서 살펴보고 답을 내려야 하겠다.

이제 비평가들이 이 본문들과 관련해서 문제삼는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a) 첫째에서는 사라가 적어도 65세 되는 나이인 데 바로가 후첩을 받아드릴 만큼 매력적인 미를 갖고 있었겠느냐? III에서도 리브가의 경우도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대해 이들이 오래 살았던 만큼 그들의 미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하면 별문제 될 것은 아니다 하겠지만, II에서는 사라가 89세였다면 I에서 보다 사라의 미가 더욱 보존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장 앞에서 사라 자신이 한 말을 들어 보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야웨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니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나나구」)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나나구」, 18: 12)라고 하였다. 여기 ‘노쇠하였다.’는 동사는 낡아빠진 웃가지, 끌태망태된 솔부대(수 9: 13, 롬 13: 28, 사 50: 9)에 사용되는 동사이다. 그러니 사라는 늦가을에 쭈그려 빠진 박모양이 되었다. 그러니 그 자신이 “‘낙’이 있으리요.”하는 말은 어떤 학자들이 이해하듯 성적 흥미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이런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무엇이 좋다고 하여 많은 아름다운 후첩들이 있는 데도 더 보태겠는가? 그래서 II에서는 사라의 미에 대한 말이 없는 데 그 빠진 이유는 Koch가 생각하듯 문맥상으로 (20장이 18장과 비교해서) 매우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인가?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 세 본문들의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있을 자리에 있지 않는 본문들이라고 하지만 그 곳에 있게 되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아기 뒷나을 출을 알고 이미 포기한 것은 사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다. 이 노부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시간이 경과함에도 나지 않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아들을 삼아보려 했다. 그 첫째가 롯이라 생각하였지만 롯 자신이 분리해감으로서 유산자가 아니구나 하고 단념하였고, 두번째는 다메섹 엘리에셀로 여기고 야웨께 보고하였지만 야웨 자신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15: 4)는 일언지 말씀으로 제의시켰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줄을 꼭 예겼다. 사라 자신도 “내가 그로(하갈)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16: 2)라고 여겼고, 그리고 야웨 자신이, 몇 달 후면 낳아질 이 아이를 두고 축복하기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16: 10)고 한 말씀은 이미 약속한 13: 16 말씀과 같은 것이다.

더구나, 17장에 와서는 야웨께서 이번만큼은 꼭 유산자를 주시겠다고 다짐해서 노부부들의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확인해주고 복 빌어 주는 말씀("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17:16)고 하실 때에 앞으로 낳아질 아기를 두고 하는 시상같지만, 여기 "낳아주게 하며"는 '와우 미완료형'이 아닌 그저 '완료 시상'('갓다 ; 내가 주었다.)이니 아브라함으로서는 16장에 이미 낳아진 이스마엘을 유산자로 여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은 17:19의 "네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말씀으로부터였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니라."(15:4)는 것에 창 2:24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면서 15:6과 같이 믿을 필요성을 알게 되고, 17장에 이르기까지 세월과 고난으로 훌뜨러진 경험층의 주관적 믿음이 섬광처럼 빛을 받은 것이다. 사라도 이스마엘이 후사가 아닌 것을 18:13-15에서 말하는 자가 단순히 사람이 아닌 것을 안연후였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노부부에게 아기를 낳는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한 다늙어 빠진 상태인 데 19장을 거쳐 20장에서도 새삼스러이 이방왕이 그녀를 후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아기를 낳아 보려는 의도(20:4 암시함)라는 기사를 읽는 우리들은 우습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 아브라함도(20:7, 17:15f) 웃었고(17:17),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의 청중 사라도 웃었다면(18:12), 이 기록을 전수받아 단순히 읽는 우리들도 우습지 않은가? 이 웃음이 하나님 말씀을 못믿겠다는 웃음이라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웨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18:14)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사라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젊어졌다(rejuvenation)는 이 야기가 된다. 그러기에 이방왕이 팀할 정도로 더 젊어졌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늙음을 말하였지만 20장보다 더 훗날인 25:1-2에 읽어 보면 새 장가들여 여섯 아이를 더 낳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사라도 젊어졌다는 증거로는 성경에는 남자들의 연수는 나오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하와, 리브가, 미리암 등). 그러나, 유독히 사라의 겨우는 나타나는데(23:1) 이는 20장 사건 후 38년이 지난 후이다. 이는 사라가 젊어졌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는 성령의 의도인 줄 안다. M. Zlotowitz는 주석하기를, "랍비가 주장하듯 그녀의 젊음이 임신 준비를 위해 되돌아왔다(Radak : Ramban) 고 할 수 있다... 그녀의 피부는 매끄러워졌고 그녀의 주름살은 사라졌고 그리고, 그녀의 전의 미가 다시 얻어졌

다."고 한다. [Bereishis/ Genesis: A New Translation With a Commentary Anthologized from Talmudic, Midrashic and Rabbinic Sources, vol. I a (The Art Scroll Tanach Series Brooklyn: Mesorah 1986) p. 722]

알더스는 주석하기를, "사라는 굉장히 나이가 많음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였던 육체적 기적을 경험했다. 이 육체적 재젊음의 기적은 사라를 그 육체적 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필요하다면 다시 연도록 할 수 있게 하여 그녀가 아비멜렉의 주의를 끌기까지 하였다."(Genesis 2 Vol. 3; II p. 27)고 하였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에 낳아 지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창세기를 띄어두지 않을까? 그리하여 비평가들이나 우리에게 모순된다 싶게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는 족장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주제와 일치한다. 야웨는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 땅, 복의 근원[개인적 축복과 멸망에 대한 축복의 매개체(Van 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p. 105 보라)]를 계시해 오는 가운데 자아가 죽고 포기되는 대서 하나님에 어떤 분이심을 보여 주려고 하셨다.

창 15장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말씀이 이론 아침에 들려졌다. 번제물 짐승들을 가져오라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루종일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아니했다. 솔개들이 와서 그 제물들을 취하여 가려하기에 쫓는 일 밖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했다. 결국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고, 그 다음에 언약제사와 미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난 것이다.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는 오늘같이 보내진다는 것인데, 그는 기다려야만 하고 땅을 유업으로 얻으려 함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평안히 잠들게 될 것이다(15:15). 40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 돌아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유업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죽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주기 보다는 신실한 종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이 땅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부활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마나'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기다렸지만 16:2에 와서는 그 가능성에 포기되고 자행자지한다. 그러나, 우황만 만나고 아이 낳는 일에 손을 들고 포기하고 그 생식 가능성이 죽는다.(17:17, 18:12) 그런데, 20장에 와서 재생식이 회복된 것이다. 이는 부활의 표징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롬 4:17f),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통해 별과 같이 허나하 무리가 새기드로 하는 것이다(히 11:11-12) "내게 어찌 나이 이으

리요”(18:12)라고 웃었던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21:6).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그 광야로 에덴같게 하였나니”(사 51:2-3)라고 하였다. 육체적 변화의 기적을 사막이 낙원으로 변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렇게 18, 19장에 이어 20장에 있는 데 여기 20장이 없이는 21장. 내용의 말을 잘 이해 못하는 말들이 있다. 21:2-5에 거듭 강조되어 나오는 말 “그 넣은 아들”이 희롱당하는 데에는 반대하며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둘째 죽장의 세계를 펼침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리하니라.”(25:19)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21:9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ပုဂ္ဂိုလ်)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LXX는 παρέσθαι, Vug에는 ludentem, 비문은 “핍박한다”, (갈 4:29) “mocking”(NIV), “laughing”(NEB), “Spelen en Dansen”(Jub 17:4) 등 여러가지로 번역되며, 여기 희롱 내용은 언급 안 되었지만 사라의 심히 근심하는 마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으로 봐서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유산을 못받은 것을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닌가하는 출생 신분이 모호하다고 암시한 것 같다.

이때에 이스마엘은 17살이었다 (17:25; 17:24; 21:5). 이스마엘의 관심(그러니 하갈의 관심)은 이삭의 합법적인 유산권을 부인함으로서 오는 그런 결과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겠다. 그러니 21:10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그 희롱에 합당한 별을 받은 것이다.

b) 둘째로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하였으니 아브라함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inplausibility) :

비평가들은 재 편집자가 원래 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생애에 서로 다른 두 기사가 나타나도록 자료를 편집하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 곧 거짓말 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같이 보일 런지 모르나 I과 II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면 다른 것이다.

여러모로 고려해 볼 때에, 두 번째의 실수는 첫 번째의 것보다 더욱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I에서는 유산자의 약속이 롯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에 아브라함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약속에 사라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죽어도 펜찮을 형편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싶어서 죽을 것이 겁나서 싫은 것을 행하는 데 실패하였다.

II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정면 불신적인 것이다. 평화롭게 죽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터에 (15:15) 그는 살해될 것을 두려워 하였으며, 그는 또한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 (17:19) 그리고, 더우기 나쁜것은 앞의 비슷한 입장의 경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던 것을 경험한 자이다. 또 하나님이 그를 구조해 주실 것이라고 알았다면, 어려울 때에 ‘또’ 믿었다고 하는 하기 좋은 변명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I과 II에서 유산자가 나올 자궁이 교섭받는 중에 하나님은 재앙으로 쳤는데, Green은 ‘Unity of Genesis’(p. 257)에서 암시하기를 이는 성교를 막는 일종의 육체적 고통이었는데 이것이 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껏 살펴본 대로는 이 기사들이 어떤 독립된 단위라기 보다는 상호연결되는 것임에 증명된 셈인 데 어떤 이들은 과 출애굽기가 밀접히 의존되어 있음을 말하는 자들도 있다. [U. Cassutto, *The Documentary Hypothesis and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Jerusalem Magnes, 1961.) pp. 78-83].

- 1) 아브라함이 흥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곳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다.
- 2)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했다.
- 3) 아브라함이 죽여질까 두려워한 것이며 사라가 구조된 것과 히브리 남자애들은 죽여지고 여아들은 살려진 것.
- 4) 야웨가 사라의 연고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것과 야웨가 이스라엘 구조 때문에 재앙을 내린 것.
- 5)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많은 재물로 내보낸 것과 바로가 이스라엘을 많은 재물로 내보낸 것.
- 6)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
- 7)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가치 말라고 말한 것 (창 26:2)과 이스라엘을 애굽에 되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신 17:16).

이들은 역사적 계시 전전 면에서 독특한 의미가 있겠지만 유형론적으로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부분과 와 출애굽기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c) III의 경우, 아비멜렉과 비골은 II의 같은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III의 경우는 II가 일어난 사건 후 76년의

일이다.

그러니 의 아비멜렉과 비골이 다시 나타났는데 같은 인물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유 명사라기 보다는 “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대 장관 비골의 경우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문제이다. 같은 인물이라면 그렇게 긴 통치를 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성경 계시에서 찾아지는가?

III의 경우는 다른 두 리브가들의 경우 보다는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그 누구도 리브가를 이삭에게서 빼앗을려는 사람도 없었고 리브가를 구원키 위한 하나님의 간섭도 없었다. 그리고, 사라의 경우와는 달리 리브가는 이미 아이들은(이 중에 야곱이 선택되지만)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25: 21f).

그러므로, 사라의 경우와는 달리 자손에 대한 약속이 깨어질 위험은 처음부터 없었다.

I에서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쫓아내었는데 그 선물을 사라와 이루어질 관계를 두고 준 것이지, 야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에게 꿈으로든지 하여튼 간 여하신 후에 선물을 주고는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20: 14-15)하였다.

그 다음 21장에 와서는 아비멜렉과 비골이 “네가 무슨 일은 하든지 하나님과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 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1: 26b-23) 이는 분명코 하나님과 아브라함더러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12: 3)는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사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권세에 관계된다(18: 18). 그러니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친구되는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자 장수와 장구한 통치를 허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II의 같은 아비멜렉이지만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II의 아비멜렉 자신은 사리를 후첨으로 취하려고 열심하는데, III의 경우에는 전 동네가 리브가의 미 때문에 떠들썩하지만 아비멜렉왕은 별 관심이 없다는듯이 늙었다는 표시인 양 “창으로 내다보는” (26: 8)정도이다. 그리고, 26: 1에 그랄왕이라 하지 않고 “블레셋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왕국의 번영을 의미한다.

d) III에서 이삭이 왜 무지한 것처럼 처신을 하였느냐? 이 사건은 분명 26: 18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의 사건이라서 에서와 야곱이 적어도

16살이나 되고 아이들이 동행하는 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자기와 함께 여행하며 일하는 자들이 아마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다(26: 14-15, 19; 14: 14).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판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언급을 피하였거나 그 따르는 무리 중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행동을 하였으리라 하는 상상은 가능하다.

e) 또 하나는 ‘그 애비의 실수를 그 아들이 또 하다니’ 하는 반대가 있다. 이미 주석 할 때 보았듯 이삭은 아브라함을 꼭 빼닮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26: 1은 12: 10을 생각하고 26: 18에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아버지가 주었던 이름을 주었고, 야웨도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26: 24)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같이 이삭도 부자였다(26: 12-14).

또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비골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20: 26-33)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데” 아내를 누이라 하는 거짓말 하는 일에도 그 애비를 닮은 것이다. 왜 성경은 두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그렇게 쓰고 있을까? 그 의의는 성경 전체의 새 아담에 대한 약속들이 변천되어 가는 경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첫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택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과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였다. 새 아담이 결코 될 수 없었다. 그러면, 아삭은 될 수 있지 아니 했겠느냐? 그가 출생한 것은 부모님들의 기적적 재생산력으로 태어났고 언약을 맺되 이스마엘파는 하지 않고 이삭과 해서 (17: 19-21), 심지어는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는 이런 특별한 기적의 아들 이삭이 새 아담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버지가 하였던 ‘내 누이다’고 한 치사한 일은 안 하겠지 하였더니 별수 없이 그 이삭도 마찬가지다(26: 7). 그 애비의 그 아들이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것이다. 이삭은 그렇지를 않겠지 했더니 어찌된 일이냐! 이삭이 메시아적 약속을 받고는 (26: 3-5) 곧 이어서 이삭의 도덕적 침률이 뒤따라 나온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이것은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12: 7에 약속을 받고 난 직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 애비의 그 새끼’ 잘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다.

W.Berg는 [Der Sundenfall Abrahams und Saras nach Gen. 16: 1, 6, Biblische Notizen 19 (1982) p. 7-14]에서 이부분을 “아브라함의 타락”이라 부르고는 12: 18(바로가 아브라함에게), 26: 10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와 창 16장에서 창 3: 13의 하나님과 하와에게 “네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를 본다.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에덴”(사 51: 3) 즉

재생식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다시 타락했으니 저들의 재생식력이 아담 타락의 결과들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늙어 죽었다.

사울도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삼하 7장) 타락하였다(삼하 11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별 수 없이 타락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경건하게 하였지만 오히려 이 방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죄악을 지은 것이다. 그러니 거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부를 더러움에도 드러내는 대신 더 큰 새 아담이 와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었던”(엡5:25-26)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엡5:32)라고 바울은 말한다.

f)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해야 할 문제는 취급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연관되는 문제인데, 창 27:1-4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에 보면 에서의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난다(비교, 27:-45에서도). 그러나, 이삭은 곧 죽지 않고 이후로 부터 적어도 40년 더 살았다는 것이 되니 모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의 나이가 130살인 데 요셉이 39살일 때이다. (45:11, 41:46)그러므로, 요셉이 태어날 때가 야곱은 91살이었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후 14년 경이다. (29:18, 30; 30:25) 그러나, 야곱이 집을 떠날 때가 77살로 그 때는 이삭은 137살(25:26)이고 180살에 죽는다(35:28). 그러나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삭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야곱을 제쳐 놓고 에서를 좋아했다. (25:23, 28) 그런데, 야웨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도 하였다. 그러나 야곱을 펉박하는 에서를 이삭이 좋아할憧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다루지 아니 했겠느냐? 이삭은 이때가 공교롭게도 137살이다.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137살에 죽었다(25:17). 그러나 이삭이 계속 에서를 취급하였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어느 날” 죽도록 수가 다하지 못하고 젊어서 죽도록 했을 것이다. 이스마엘의 연수가 특별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이삭의 생명이 단명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라고 한다(27:29). 이삭은 여기까지도 나쁜 자를 축복하는 형별로 눈이 멀어서 자기가 ‘나쁜’(실제로 옳은)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도록 원하는 것을 알 때에는 그 자신도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28:3)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삭의 영별을 면케 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족장들의 약속들을 성취하심에 연륜의 과정에서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계신다.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